‘역대 최대’ 베트남 관광객 1만명 전남 온다

도, 베트남서 전남여행상품 협약
무사증 시행… 공항 활성화 기대
10월까지 나트랑~무안 전세기 운항
김 지사 “남도 관광 세계화 선도”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을 앞둔 25일(현지시간) 베트남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나트랑 쉐라톤 호텔에서 전남 관광설명회를 열고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응웬 티 김 양 달랏투어리스트 대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손정권 ㈜에이앤드티 대표, 응웬 당 끄엉 퍼시픽항공 부사장.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남도 관광 세계화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베트남 관광객 1만여명을 유치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베트남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을 앞두고 베트남 나트랑 현지에서 전남 관광설명회를 열고,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를 통해 등 베트남 관광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날 관광설명회에는 손정권 ㈜에이앤드티 대표, 응웬 티 김 양 달랏투어리스트 대표, 응웬 당 끄엉 퍼시픽항공 부사장과 차영수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철 경제관광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에이앤드티와 베트남 관광 분야 국영기업인 달랏투어리스트는 퍼시픽 항공을 이용, 무안공항으로 입국해 도내 2박 이상 체류하는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올해 3월말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세기를 통해 1만여 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역대 베트남 관광객 전남 방문 최대 규모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해외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설명회 부대행사로 26일까지 이틀간 나트랑시 광장에서 ‘전남관광 트래블마트’를 열어 전남 여행상품 판촉행사도 진행했다.

전남 관광자원과 여행상품을 알리는 총 8개 부스를 운영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이번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은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3개국 대상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가 3월15일부터 운영됨에 따라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베트남의 관광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이뤄졌다.

무사증 입국제도가 시행되면 무안국제공항으로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문객은 최대 15일간 전남·광주·전북·제주 체류가 가능하다. 동남아시아 관광시장을 겨냥한 전남 관광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관광객 이탈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광객 모집 단계부터 현지 여행사를 통해 단체여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 서류가 있는지 여부 등 무단이탈 가능성을 면밀하게 확인해 이탈 우려자 탑승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적격자 입국을 방지하고 준법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출입국 수속 지원과 이탈 방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그동안 국내외 관광업계와 지속해 소통하고 전남의 경쟁력 있는 청정·힐링·문화자원을 홍보한 결과 대규모 베트남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해 케이(K)-관광의 세계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방콕-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업무협약을 했다. 그 결과 1월30일부터 2월24일까지 7항차를 운영해 태국 관광객 1000여 명이 전남을 방문했다.

최황지 기자

전남도, 동절기 위기가구 연료비 지원 인상

월 11만원→15만원 긴급지원 강화

전남도가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을 더 두텁게 강화하기 위해 연료비 지원 금액을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다양한 긴급복지를 제공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전남도가 운영하는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120번)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소득 기준은 4인 기준 405만원 이하,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실거주 주택에 대해 재산공제를 적용하면 시 지역은 4200만원이 인상된 1억9400만원, 군 지역은 3500만원이 인상된 1억65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162만원, 주거지원은 시 지역 43만원, 군지역 25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다.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긴급복지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가구에 동절기(1월~3월·10월~12월) 동안 지원되며, 지난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됐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적극 발굴·보호하고, 단전·단수된 가구 조사 등을 통해 더욱 촘촘히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광주상수도본부, 덕남정수장 사고 피해보상 접수

2월 수도요금 일부 감면
저수조 청소·영업보상 등
3월2~17일 이메일 접수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덕남정수장 유출밸브 사고로 인한 수돗물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보상은 단수 및 흐린물이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2월 수도요금 중 이틀 분을 감면한다. 단 2월 수도요금은 4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반영된다. 단수 및 흐린물이 발생한 피해지역과 덕남정수장 인근 침수피해 등 정수장 사고에 따른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 접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신청은 △저수조 청소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영업보상 등이다.

보상 신청을 희망하는 수돗물 피해 세대는 피해보상신청서와 증빙자료를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5개 자치구 수도요금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일반주민) 또는 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기관),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신청자 명의)이다.

이와함께 피해로 인한 물품구입 영수증이나 사진을 제출하고, 영업장의 경우 매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자료 등 수돗물사고로 인한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5개 자치구, 광주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각 수도요금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보상 신청을 접수 받은 후 ‘광주광역시 수돗물 수질사고 관련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월까지 보상 유무, 보상금액 등을 결정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시민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기간 내 빠짐없이 피해보상 신청서를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지 기자

다문화가족도 무등산 정상 오를 수 있다

3월4일 정상개방때 첫 허용

오는 3월 4일 올해 처음 열리는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에 다문화가족의 참가는 가능하다.

최근 광주시에 따르면 무등산 정상에 있는 군부대 시설의 보안 때문에 외국인 출입은 제한되지만, 다문화가족은 방문이 가능하다. 다만,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다문화가족 출입 허용은 지난 2011년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시작된 이래 최초다. 광주시는 다문화가족 방문에 대비해 안내 인원을 보강하고 서석대 앞에서 출입을 안내하는 등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아쉽지만 이번 개방 행사 때는 다문화가족 외 외국인은 무등산 정상 방문이 제한된다. 군부대 보안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 2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오는 9월부터는 국적 불문하고 누구나 무등산 정상부 방문이 가능해진다. 광주시-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국립공원공단이 체결한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 업무협약’에 따라 외국인도 무등산 정상부에 오를 수 있다.

정강욱 시 녹지정책과장은 “무등산 정상에는 군부대 시설이 있어 수개월 전 개방행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번 개방행사에 외국인 출입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상지 기자

전남도, 독립유공자 16명 대통령표창 서훈 확정

미서훈자 발굴 1단계 사업 성과
광역단체 최초… 명예회복 기여

전남도는 오는 3·1절 기준 독립유공자 서훈에 16명이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서훈 확정은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의향 전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도내 마지막 한 명의 독립운동가까지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지난해 7월 국가보훈처에 80명을 서훈 신청했다.

이번에 서훈이 확정된 유공자는 지난해 전남도가 추진한 독립유공 미서훈자 발굴 1단계 사업 마무리 후 서훈을 신청한 대상자다.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가 직접 발굴한 독립운동 미서훈자에 대한 서훈 확정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신청자 80명 중 현재까지 16명(20%)이 서훈을 받아 전남도가 역점 추진한 독립유공자 발굴사업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훈 훈격은 ‘대통령 표창’이다. 지난해 제77주년 8·15 광복절에 순천, 담양, 곡성 각 1명, 무안 3명 등 총 6명이, 오는 제104주년 3·1절에 목포, 순천, 구례, 영암, 무안, 영광 각 1명, 해남 4명 등 총 10명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제77주년 8·15 광복절에 서훈이 확정된 무안 출신 독립운동가 고 이복점, 고 이은득, 고 이금득, 3명의 유공자는 1919년 당시 목포 만세 시위에 참여한 삼남매인 것으로 밝혀져 감동을 주고 있다.

해남 출신 독립운동가 고 박기술 유공자의 대통령 표창은 해남에 거주는 딸에게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직접 전수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늦었지만 독립운동가로 서훈이 확정된 16분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고, 전남도가 직접 발굴해 서훈을 신청한 나머지 64분도 조속히 서훈이 확정되도록 국가보훈처와 적극 노력하겠다”며 “전남도는 마지막 한 분의 독립운동가까지 반드시 찾아 하루빨리 명예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3·1운동 중심의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1단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1895년 한말 의병부터 1945년 해방된 날까지 전 기간에 걸쳐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을 통해 발굴된 독립운동 미서훈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황지 기자